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actics in Team Performance Evaluation

Jungsu MOON<sup>1</sup>, Ihyeok PARK<sup>2</sup>, Nam-Su KIM<sup>3</sup>

Received: August 30, 2024. Revised: September 22, 2024. Accepted: September 23, 2024.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xtract and categorize the team's tactical factors in soccer matches. Tactical factors are extracted on the basis of the phases consisting a football match (attack, defense, attacking transition, and defensive transi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 semi-structur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group of experts of five football managers and coaches to explore tactical factors. Analysis of the content was done using a categorical aggregation or direct interpretation, and then was conducted factorial extraction and categorization. **Results:** In the attack phase, a direct attack and a step-by-step (occupation) attack form the type of attack, and in the attack transition phase, a long counter attack and a short counter attack form the type of attack. The type of defense in the defense phase was divided into regional defense and compression defense, and the type of defense in the defense transition phase was divided into defense for delaying counterattacks and defense for immediate pressure. Each tactics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game and the play of style. **Conclusions:** It may indicate the team's performance and has the potential for being used as a team performance factor. Furthe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Performance Evaluation, Team Performance, Football, Tactic

**JEL Classification Code:** L20, L30, I18, I19, J24, J28

## 1. Introduction

최첨단 장비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서의 경기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개인 종목의 스포츠 경기에서는 선수 개인에 대한 분석과 개인의 경기 환경이 고려되어야 하나, 팀 종목의 스포츠 경기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많아진다. 개인과 개인의 대결이 아닌 팀 간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선수들 간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Kim, 2007; Yun, & kim, 2017).

스포츠 경기력 평가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단일 수준의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전체를 설명하려는 입장인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이는 경기의 승패 결정요인과 경기력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들(Hughes, 1988; Luhtanen, 1993)이나 개별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경기력을 설명하려는 연구들(Kang & Yun, 2023; Yun, & kim, 2017; Yun, Kim, & Im, 2021)과 관련이 있다

Min, Lee, and Kim (2015)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기력 평가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패스, 슈팅, 드리블, 볼키퍼, 넓은 시야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요소들이 실질적인 경기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Kim (2007)의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팀 경기력 관련 연구들의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동안 학계에서 팀 경기력 관련 논의가 개인 경기력의 합으로 인식되어 옴으로서 현장과의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현장 적용성을

1 First Author, Associate, Korea Curling Federation, South Korea. Email: [chchdotori@hotmail.com](mailto:chchdotori@hotmail.com)

2 Second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Email: [ipark@snu.ac.kr](mailto:ipark@snu.ac.kr)

3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ivision of Global Sport Industr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uth Korea. Email: [nskim@hufs.ac.kr](mailto:nskim@hufs.ac.kr)

낮추는 원인이 되었으며, 팀 관련 경기력에 대한 개념 정립과 관련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Yun & kim, 2017; Yun & Kim, 2021).

Soltanzadeh and Mooney (2018)의 연구에서는 팀 경기력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전술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경기의 상황에 따라 팀의 목표가 결정되고 각각의 전략 및 전술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경기의 상황과 팀의 목표를 포함한 팀 경기력의 결과물로 바라보았다. 즉, 전술이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Costa, Garganta, Greco, and Mesquita (2009)의 연구에서도 경기에서의 상황을 공격과 수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목표와 전술들을 나열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경기력의 개념을 토대로 선수의 전략·전술적 능력을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Garganta and Pinto (1994)의 연구는 개념적으로 모호하여 측정이 어려운 전략·전술적 요인에 대해 측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되며,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축구 경기력 평가에서 전술 요인에 대한 탐색과 실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논의되었다. 축구에서의 전술에 관한 개념 및 구성은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개념적 함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Garganta & Pinto, 2009; Soltanzadeh & Mooney, 2018). 본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술은 경기의 상황과 경기장의 특수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단지 선수의 배치(formation)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팀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차원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전술의 개념을 기존 의미에서 확장하여 제시하였는데, 개인 전술의 일반적 개념을 '상대방 선수가 개인 선수에게 접근하였을 때 대처하는 개인의 전술적 행위'로 본다면, 팀 차원에서 개인 전술은 '개인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팀 차원의 전술적 행위'로서 바라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드리블 돌파 능력이 우수한 선수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팀 전체가 특정 선수에게 볼을 연결하기 위해 전술적 지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선수가 돌파하기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전술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 전술의 개념을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다른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고, 팀 전술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전술은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팀 경기 가운데 축구종목을 선택하여 전술로서 팀 경기력을 분석하였다. 먼저 팀 전술 연구를 위한 분석단위로서 공격, 수비, 공격 및 수비전환국면으로 구분하고 각 단위의 전술요인을 탐색하여 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팀 단위 경기력 평가가 개인 경기력의 합을 통해 팀 경기력을 바라본다는 사고에서 팀 단위 경기력을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평가요인으로 전술요인의 활용가능성을 제안하였다.

## 2. Methods

본 연구는 축구에서 팀 단위의 경기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요인들 중 전술 요인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계획되었다. 본 연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축구 전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축구에서 전술 요인이라 함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전술 요인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탐색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고, 축구 전술과 관련된 기존 문헌들과 현직 지도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 면접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의 유형으로는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 Interviews) 방식을 채택하여 탐색되어야 할 일련의 질문과 쟁점은 정해두지만 이를 탐색하기 위해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유도한다거나 질문의 순서를 정해두지 않았다. 단, 응답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축구경기에서의 상황을 연상하게끔 대화를 유도하면서 질문의 핵심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면접 대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해당 의견을 질문함으로써 응답 내용에 관한 신뢰성을 검증하였고, 2인 이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내용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2.1. Participants

본 연구는 축구에서의 전술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갖춘 집단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구성은 감독, 코치, 경기분석관으로 선택하였고, AFC 지도자 라이선스 A 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국제 공인 라이선스를 보유한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선정은 일반화가 가능한 사례 수를 확보하는 것보다 연구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례를 찾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Goetz & Compte, 1984). 따라서 연구자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축구에 대한 전술적 지식을 갖추고 팀의 관점에서 전술을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의 전술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현직에 있는 지도자(감독, 코치)를 대상으로 하였고, 경기 분석에 관한 조연을 구하기 위해 전·현직 경기 분석관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Table 1:** Football specialist group

Position	Affiliation	FIFA license
Head coach	University	AFC A
Head coach	University	AFC A
Coach	K league 1	AFC A
Coach	K league 2	UEFA B
Coach	K league 3	UEFA B
Football Analyst	-	-

본 연구는 개별 심층면접으로 진행하였다. 6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11 회 진행하였으며, 전술 요인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 1 차 면접과 전술 요인의 범주화를 목적으로 한 2 차 면접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 차 면접의 경우 전문가를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2 차 면접의 경우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나 전문가의 거주지와 스케줄을 고려하여 직접 대면이 어려운 경우 전화 면접으로 대체하였다.

면접 시작 전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면접 대상자로 하여금 질문의 핵심과 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응답 내용은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해 녹취하였다. 녹취는 면접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고, 녹취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녹취 파일을 전사하여 한글(Hwp) 프로그램 문서파일로 변환하였다.

## 2.2. Analysis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질적 사례연구 분석방법인 범주 합산 혹은 직접 해석(categorical aggregation or direct interpretation)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와 함께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유사한 내용들을 하나의 개념 단위로 구성하였다. 범주 합산 혹은 직접 해석방법은 여러 의미가 하나의 범주로 수렴할 때까지 합산하는 방식(Stake, 1995)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개방 코딩(open Coding) 기법을 채택하였다. 개방 코딩은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생각과 사고, 혹은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자료 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물체, 작용, 상호작용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개념(concept)을 찾고,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 물체, 작용, 상호작용에 대해서 범주화하여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도 문장 단위로 구성된 전사 자료를 한 단위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명을 부여하였고, 유사한 의미와 개념들로 하위 범주를 구성한 뒤 유사한 개념의 하위 범주를 상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 3. Results

### 3.1. Attack tactics

본 연구에서는 팀이 각각의 공격 과정에서 수행하는 공격 작업들을 전술로서 바라보았고, 상대 수비라인을 돌파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인, 부분, 팀 단위의 전술적 행위들을 전술요인으로서 바라보았다. 전술요인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과 이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1.1. Attack phase

단계별 공격 과정에 관여하는 전술요인은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활용한 전술’, ‘전방의 움직임 활용한 전술’, ‘공격방향 전환을 활용한 전술’, ‘개인 능력을 활용한 전술’, ‘크로스를 활용한 전술’이라는 5 개의 상위 범주로 추출되었다. 5 개의 상위 범주들은 13 개의 하위 범주들로 구성되었다.

첫째,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활용한 전술은 수적우위를 통한 패스루트 형성, 역할이동을 통한 수적우위 형성, 유기적인 패스를 통한 전진의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패스루트 형성의 중요성]**

전문가 B: 처음 공격을 전개해 나갈때 전방이나 대각선으로 패스루트가 있어야되요. 그렇지 않으면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볼을 전방으로 보낼수 없고...

전문가 E: 어떤 움직임을 통해 패스 길을 만들 수 있느냐... 3 자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중요하죠. 다음 플레이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니까...

**[수적우위 형성]**

전문가 B: 기본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 우리가 수적으로 상대 공격수가 압박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공격 숫자가  
많으니까 골키퍼까지 활용해서 빌드업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전문가 C: 라인을 하나하나씩 썰어나간다고 표현하는데... 패스를 통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패스루트가 형성이  
되어야하고 그 지역에서 상대보다 숫자가 많아야 유리하죠.

**[유기적인 패스를 통한 전진]**

전문가 E: 상대라인을 돌파하려면... 기본적으로 원투패스를 해서 나가거나...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원투패스 치고 나가거나 3 자 패스로 나갈 수 있어요.

전문가 C: 라인을 돌파할 때, 월패스, 3 자패스로 이런 것들로 상대라인을 뺏겨서 나간다고 하죠.

전문가 A: 2 대 1 패스, 월패스, 3 자패스 흔히 콤비네이션 패스라고 해요. 상대라인 돌파할 때는...

둘째, 전방의 움직임을 활용한 전술에서는 하위범주로서 침투움직임을 통한 전진, 측면움직임을 통한 전진,  
후방지원움직임을 통한 전진으로 분류되었다.

**[침투움직임을 통한 전진]**

전문가 A: 그러다 최종적으로 수비라인을 돌파하려면... 공격수가 라인브레이킹 해서 최종수비라인을 넘어야지.

전문가 C: 결국엔 뒷공간 침투가 이루어져야 위험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거고... 움직임이 있어야 패스도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 E: 공격 작업에서 특히, 마무리 과정에서 전방 움직임이 중요하죠. 물론 패스도 중요하겠지만... 공간 침투가 되어  
기회를 잡으니까

**[측면움직임을 통한 전진]**

전문가 B: 포백의 약점이 간혹가다 윙백이 전진해서 수비하면.. 측면에서 후방지역에 공간을 내주거든요... 공격수가 그  
공간으로 이동해서 전개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전문가 A: 사이드에서 공격하다보면 상대수비도 몰리다가 윙백까지 몰릴 때가 있어. 그럼 사이드에서 뒷 공간 보이니까  
공격수가 이동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후방움직임을 통한 전진]**

전문가 D: 상대가 전방압박을 하면 수비라인을 올리겠지. 특히 미드필더 라인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미드필더랑 수비  
사이에 공간이 벌어져. 공격수가 그 공간을 먹고 들어가서... 볼을 받을 수 있어야지..

전문가 B: 미드필더 지역에서 수적으로 딸린다 그러면... 공격수가 조금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비를 등진상태에서 볼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후방으로 내려와야 되요.

셋째, 공격방향 전환을 활용한 전술에서의 하위범주는 탈압박과 방향전환을 위한 포지셔닝으로 구분되었다.

**[탈압박은 상대수비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공간으로 이동]**

전문가 B: 상대수비가 밀집되어있는 공간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확률을 높이려면 돌아가는거죠 빠르게 전환해서  
올라가는...

전문가 C: 상대라인을 뺏겨낼 수가 없다... 그럼 1 차적으로는 상대압박이 있는 지점에서 나오는거예요 탈압박이라고 하는..

**[방향전환을 위해 의도적으로 간격을 무너뜨림]**

전문가 A: 측면에서의 1 대 1 상황을 만들어서 너는 드리블 돌파가 좋으니까 한명정도는 상대를 해.. 그럼 1 대 1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반대편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패스... 그런 패스를 할 수 있는 미드필더를 위치를 잡게하죠.

전문가 D: 의도를 갖고 한쪽으로 쏠려있다고 보는거죠, 그래서 상대가 쏠리면 반대쪽으로 전환하게끔... 중간에 링크도  
필요하고...

넷째, 개인 능력을 활용한 전술은 1 대 1 돌파와 드리블을 통한 공간창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 [1 대 1 드리블 돌파]

전문가 B: 측면에서는 특히 상대 1 명정도 제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패스로 풀어나가는게 안될 때나... 측면에서 한명 돌파하면 수적으로 우위가 되버리니까...

전문가 C: 1 대 1 상황을 만들어서 돌파하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반대쪽으로 연결하고 1 대 1 상황 만들어서 돌파하고.. 팀에 그런 선수가 있으면 측면 전술을 짤 수 있죠.

전문가 E: 전형적인 원어가 있는 팀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측면에서 1 대 1 상황 최대한 많이 만들자.... 이게 안 먹히면 바꿔야겠지만 중원에서보다는 잘 먹힐 때가 있어요.

### [공간 창출 드리블(스페이스 드리블)]

전문가 E: 상대가 지역수비로 라인을 촘촘하게 짜서 버티고 있다... 그러면 패스로 들어가기 쉽지는 않죠. 그럴 때 라인을 조금 흔들어서 놓는다고 할 수 있는데... 드리블을 해서 상대를 끌어오는거죠 이동시켜서 다시 패스 길을 만들고 하는...

전문가 D: 중원보다 측면에서... 중원보다 압박이 덜하니까 그런곳에서는 개인능력이 중요할 수 있죠... 특히 중원에서 사이드로 치고 들어가서 상대수비를 끌고 간다거나... 사이드에서 상대 끌어놓고 오버래핑하는 선수한테 연결하거나 하는...

전문가 E: 네.. 드리블로 상대 끌어서 패스 길 만들고 하는... 스페이스 드리블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크로스를 활용한 전술은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과 킥백을 활용한 공격으로 구분되었다.

### [측면에서 크로스 활용]

전문가 B: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많이 하는 이유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골문 근처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 골문 앞에 어느정도 인원이 갖춰져 있어야겠죠 아무도 없는데 올려버리면 소용이 없어지니까..

전문가 D: 측면 전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크로스는. 측면으로 전개를 하나간다 하면 공격수나 골문 근처로 몇 명을 준비시켜요 특정 움직임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훈련을 통해서 크로스의 정확도나 헤딩으로의 연결여부 이런 것들을 준비하죠.

### [측면에서 얼리 크로스 활용]

전문가 D: 우리 공격수가 높이에 강점이 있다 그리고 패널티박스 안에 있다 싶으면 크로스를 올려볼만 하죠. 사이드 끝까지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리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전문가 E: 측면에서 더 이상 전진을 하기 어려운데 골문 근처에 동료가 있으면... 얼리 크로스 올려볼 수 있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올렸다면 전술로 보기 어려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거다 싶으면 사이드 전술로 볼 수도 있죠.

### [측면 돌파를 활용한 킥백]

전문가 D: 개인돌파로 측면을 뚫으면 그 다음은... 패널티박스 쪽으로 진입해서 킥백하거나 직접 해결... 드리블 돌파로 들어갔을 때 위협적이죠.

전문가 E: 측면에서 크로스를 하거나 킥백을 시도한다 그러면 동료들이 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선점해야하죠.

전문가 A: 드리블 돌파가 좋다 하면. 측면에다 배치해서 1 대 1 상황 만들고.. 들어가면 동료들 준비하고 킥백하고..

## 3.1.2. Direct attack

다이렉트 공격 과정에 관여하는 전술요인은 상위범주로서 ‘포스트 플레이’, ‘콤비네이션 플레이’, ‘전방의 움직임’, ‘개인능력’으로 구분되었다. 4 개의 상위 범주들은 5 개의 하위 범주들로 구성되었다.

첫째, 포스트플레이는 연계과정을 중시하는 공격전술로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 [볼키퍼]

전문가 A: 롭볼로 전진을 하려면 우선 공격수가 받고 버틸수 있어야되. 동료들 올 때까지 키퍼해서 넘겨주고 다시 이동하고...

전문가 B: 수비에서 롭볼 주고 공격수가 상대수비랑 경합해서 따 내고 등진다고 하잖아요? 공격수가 볼을 얼마나 잘 간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공중볼 경합]**

전문가 B: 롱볼이 항상 공중볼만 있는건 아닌데 땅볼로 깔려서 올 수 있고... 그래도 공중볼의 비중이 더 높겠쥬. 그랬을 때 헤딩 능력이나 공중볼이 왔을 때 상대랑 경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좋겠쥬 전방에 위치한 공격수라면..

둘째, 콤비네이션 플레이는 2개의 하위범주로 구성을 하였는데 수적우위 상황연출을 통한 공격전개와 지원움직임을 통한 세컨볼 획득과 관련이 있었다.

**[경합 지역으로의 지원]**

전문가 B: 공격수가 혼자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 상대수비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압박을 받쥬. 그랬을 때 동료가 지원을 해줘야되요 후방에서 접근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 E: 롱볼을 투입하면 공격수 근처에 미드필더들이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수비에서 커버링 같은 개념인데 공격에서도 커버링 혹은 커버리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문가 C: 미드필더는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많아야 돼요. 공격수가 고립될 때 빠르게 지원 나가고 해야되니까..

**[경합 지역에서의 수적 우위]**

전문가 E: 투톱을 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투톱끼리 빠르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 미드필더가 오지 않아도 다른 하나가 받쳐주고 할 수 있쥬

전문가 C: 볼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유기적인 패스가 이루어지고 전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쥬.

**[세컨볼에 대한 대비]**

전문가 E: 롱볼은 슛패스보다 정확성에서 떨어져요 실패할 확률도 크고요. 그래서 세컨볼이 중요하구요. 세컨볼을 따내려고 가장 근처에 위치한 동료가 접근하기도 하고 팀마다 전술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거고...

전문가 A: 세컨볼 따내는 게 중요해요. 롱볼이 실패해도 공격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드필더들이 중간에서 활동량을 발휘해야되고.

셋째, 전방의 움직임과 관련한 하위범주는 침투움직임을 통한 전진으로 분류하였다.

**[전방 지역으로의 침투]**

전문가 A: 롱볼을 통해서 전진한다는건 상대 골문으로 빠르게 진입하겠다는거야. 그럼 롱볼이 연결되고 나서도 최대한 빠르게 전진해야겠지.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게 전방으로 침투하는 움직임 보고 짚어주는거고.

전문가 C: 결국엔 뒷공간 침투가 이루어져야 위험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거고... 움직임이 있어야 패스도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 B: 타켓형 공격수 보고 때려 놓고서 이게 연결 됐으면 그 다음 동작으로 더 깊은 위치로 침투하고 연결되어야쥬.

마지막으로 개인능력의 상위범주는 전진드리블의 중요성에 대한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전진드리블의 중요성]**

전문가 B: 리턴패스 받고 빈 곳으로 연결하거나 그게 안되면 드리블로 이동해야되요. 측면에서 1 대 1 돌파랑은 다른 개념인데. 빈 공간으로 움직여서 상대수비가 붙지 않게... 볼을 뺏기지 않으면서 이동할 수 있어야쥬.

전문가 C: 상대수비 돌파하는 드리블도 있겠지만 빈 공간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드리블도 있쥬.

전문가 E: 드리블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는... 스페이스 드리블 개념이랑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 그보다 전진 성향이 더 짙쥬.

**3.1.3. Counter attack**

카운터 공격 과정에 관여하는 전술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축구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한 결과, 카운터 공격 과정에 관여하는 전술요인은 상위범주로서 ‘전방 움직임을 활용한 전진’, ‘개인 능력을 활용한 전술’, ‘측면을 활용한 전진’이라는 3개의 상위 범주로 추출되었고, ‘공간 배분을 통한 전진 움직임’, ‘상대 위험지역으로의 침투’, ‘1 대 1 드리블 돌파’, ‘빠른 드리블을 통한 전진’, ‘상대 위험지역으로 빠른 크로스’라는 5개의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카운터 공격과정은 롱카운터와 쇼트카운터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으며 쇼트 카운터 공격 과정에서 1 대 1 돌파의 중요성이 강조된 반면 롱카운터에서는 빠른드리블을 통한 전진이라는 범주가 새롭게 강조되었다. 롱 카운터 공격의 경우 상대 골문으로부터 먼 지역에서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 혹은 빠른 템포에 대한 개념이 추가되어 나타났다.

첫째, 전방움직임과 관련된 하위범주는 다음과 같이 추출되었다.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

전문가 B: (역습 상황에서) 볼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중요해요. 어느 지점에서 볼을 뺏었느냐. 누가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전에 훈련으로 연습하고 준비가 돼서.. 실전 경기에서 드러나는거예요.

전문가 A: 오프더볼이라고 하는... 리버풀 같은 팀들은 역습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어.

전문가 C: 애가 움직이면 애는 수비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요.

**[공간 배분의 중요성]**

전문가 E: 볼을 탈취한 시점부터 전방으로 이동하는데 몇 명이 앞에 있느냐 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위치를 선점해가면서 전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공간 배분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의미로...

전문가 B: 공간을 배분해가면서 들어가는 움직임도 있죠. 똑같은 방향으로 떼지어 갈 필요도 없고 상대수비 안 물리게끔 공간 나눠서 전진하는게 필요하고요.

**[전방 움직임의 중요성]**

전문가 C: 상대 골문 근처에서 (공격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역습 과정에선 속도가 중요하죠. 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볼이 있을 때는 빠르게 드리블 쳐서 올라가던가 아니면 상대 골문 쪽으로 찢러넣던가... 그 상황에서 가장 빠르다고 생각되는걸 해야되요.

전문가 D: 패널리 박스 근처로 빠르게 가서 공격을 마치는게 중요하죠. 앞에 움직임이 있어야 (연결이) 되고.. 그 움직임을 보고 연결할 수 있어야..

전문가 B: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대수비 복귀하고 하니까 공격이 많이 무너지죠. 최대한 몇 초 이내에 마무리 할 수 있게 준비한다거나 아무래도 볼이 사람보다 빠르니까 패스를 통해 연결하려 하죠. 골문 근처나 침투하는 동료한테..

둘째, 개인능력과 관련한 하위전술은 1 대 1 돌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카운터 과정에서의 드리블 돌파의 효율성]**

전문가 A: 상대 골문 근처니까 뚫으면 바로 슈팅찬스야. 그럼 드리블로 돌파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지. 안되면 뒤로 돌리고 그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거야.

전문가 D: 역습 상황인데 동료들 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죠. 패스할 수 없다 그럼 드리블 돌파가 최선이죠 주변에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는 빨리 벗어나야되니까.

**[빠른 드리블의 중요성]**

전문가 C: (롱 카운터 상황은) 쇼트 카운터 상황보다는 거리가 있으니까... 빠르게 올라가는게 더 중요하죠. 그게 패스건 드리블이건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게 최우선이고요.

전문가 D: 역습상황에서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거고요. 패스로 전진하는게 제일 빠르겠지만 안되면 드리블. 드리블도 적절한 공간 찾아서 빠르게 올라가야죠.

전문가 E: 카운터 상황이면.. 빠르게 전진하지 않으면 후방이든 옆에서든 수비하려고 달려볼것죠. 그 상황을 피하려면 전진해야 되는데 전방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연결하고 아니면 드리블로 빠르게 전진하고.. 1 대 1 상황을 만드는 것 보다 빈 공간으로 빠르게 치고나가는게 유리하겠죠. 1 대 1 하다가 반칙으로 끊으려 할테니까..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에게 연결하여 해결]**

전문가 E: 아무래도 역습 상황이고. 골이 가장 많이 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득점력이 높은 선수나 공격수, 개인능력이 좋은 선수한테 연결하는 것도 전술의 일부죠.

셋째, 크로스를 활용한 전진이라는 상위범주는 상대위험지역으로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

전문가 B: 측면에서 골문 근처로 빠르게 투입하려면 크로스도 많이 쓰죠. 역습 상황이면 수비가 정렬해있지 않은 상태니까 더 효과적일수도 있어요.

전문가 C: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전방으로 투입하는 거... 크로스도 하나의 방법이고...

### 3.2. Defense tactics

본 연구에서는 팀이 각각의 수비 과정에서 수행하는 수비 작업들을 전술로서 바라보았고,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개인, 부분, 팀 단위의 전술적 행위들을 전술요인으로서 바라보았다. 전술요인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과 이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2.1. Regional defense

지역 수비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수행하였고, 면접 내용을 분석하였다. 지역 수비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은 상위범주로서 ‘수비 대형 유지’와 ‘수비 커버리지’를 구성하고, 하위 범주로서 ‘수비 라인의 간격’, ‘수비 라인의 균형’, ‘공간에 대한 선수 배치’, ‘공간에 대한 역할 분배’, ‘수비 지원(커버)을 위한 포지셔닝’, ‘동료에 대한 수비 지원(커버)’를 구성한다. 따라서 지역 수비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은 총 2개의 상위 범주와 6개의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먼저 수비대형유지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로서 범주로서 ‘수비 라인의 간격’, ‘수비 라인의 균형’, ‘공간에 대한 선수 배치’, ‘공간에 대한 역할 분배’는 다음과 같다.

##### [선수 간의 좌우 간격]

전문가 A: 지역 방어 형태에서는 선수들이 간격을 좁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야 상대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니까. 설령 들어오더라도 우리 수비가 더 많으니까 수비하기에도 유리하고...

전문가 B: 지역 수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라인 간격을 유지하면서 상대가 위험공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게 첫 번째 목표죠.

##### [2-3 선 간의 상하 간격]

전문가 A: 선수 간의 간격도 있을 것이고, 2 선 수비와 3 선 수비 사이의 간격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 E: 2 선 수비와 3 선 수비 사이의 공간을 위험지역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 지역을 좁게 유지하거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해서 방어하는 방법도 있고...

##### [수비 라인의 좌우 이동]

전문가 E: 상대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가 전환을 할 때 우리 수비라인이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해요. 결국 수비에서 공간이 언제나냐면 공격을 반대쪽으로 전환할 때 나가거든요...

전문가 C: 수비 라인이 이동할 때 기존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수비 대형을 얼마나 컴팩트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전문가 B: 상대가 다양하게 공격방향을 전환하더라도 흐트러지지 않아야...

##### [2-3 선 사이 공간에 대한 선수 배치]

전문가 E: 지역 수비 상황에서는 위험지역 특히 2 선과 3 선 사이 공간을 어떻게 방어할지가 중요해지는데, 홀딩 미드필더를 배치하거나...

전문가 B: 지역 수비라면 일단 우리 진영에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상대가 넘어오면 수비하겠다는 것인데,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미드필더나 수비 인원을 많이 배치하는....

##### [2-3 선 사이 공간에 대한 역할 분담]

전문가 D: 위험지역에 대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요. 애가 뚫리면 애가 나오고, 애는 커버하고 등의 역할들...

전문가 E: 3 백에서 한명이 유동적으로 올라가서 막거나 하는 식의 위험지역에 대한 대비 내지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죠. 센터백 중에 스토퍼를 역할을 부여해서... 위험지역을 방어할 수 있고... 홀딩 미드필더나 포어리베로 등의 포지션이 여기서 나왔죠.

다음으로 수비커버리지의 하위범주인 ‘수비 지원(커버)을 위한 포지셔닝’과 ‘동료에 대한 수비 지원(커버)’은 다음의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 [지원이 가능한 거리 유지]

전문가 C: 돌파를 허용했을 땐 커버링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수비 인원이 총원될 수 있게 위치해 있는게 중요해요.

전문가 A: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커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수비에서 중요하지.

**[뒷공간 커버에 대한 준비]**

전문가 C: 선수 뒤로 넘어가는 볼들이 있어요 수비수가 처리하기 곤란한... 특히 중앙 수비수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대가 침투패스를 할 타이밍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뒷공간 커버는 먼저 예측해서 반응하는게 필요하거든요. 좋은 수비수의 조건이기도 하고요.

**[상대 돌파에 대한 대처]**

전문가 A: 돌파를 허용하면 근처에 누가 바로 반응해서 나간다거나 커버하러 나간 동료의 수비구역을 메워 주는 이런 커버 플레이가 중요하지.

**[드리블 돌파 능력이 좋은 상대 선수에 대한 대처]**

전문가 A: 1 대 1 상황보다는 2 대 1 상황을 연출하도록 해야되요. 자기 마크맨을 견제하면서도 돌파 능력 좋은 선수를 같이 시야 안에 둔다거나 견제 하는게 필요하죠.

전문가 C: 상대 선수가 돌파능력이 좋으니까... 돌파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기존에 마크하는 선수와 드리블 하는 선수를 동시에 시야안에 넣고 돌파되었을 때 언제든지 커버할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해야죠.

**[뒷 공간 허용 이후의 대처]**

전문가 B: 최종수비라인 뒷 공간을 허용하게 되면 슈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가장 위험하고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1 차적으로 수비를 하는 것이죠. 센터백 간의 간격이 유지되어야 하는게 센터백 하나가 뒷공간을 허용하면 또 다른 센터백이 커버해야 하니까...

전문가 E: 센터백들끼리 간격을 유지하는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커버를 해줘야되니까. 아무래도 센터백 뒤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험하지. 커버가 잘 이루어져야...

**3.2.2. Compression defense**

압박 수비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은 상위 범주로서 ‘공격차단’, ‘라인 컨트롤’, ‘상대 실수 유도’를 구성하고, 하위 범주로서 ‘패스루트 차단 및 패스옵션 제한’, ‘수비라인의 전진’, ‘수비라인의 후퇴’, ‘오프사이드 트랩 활용’, ‘수적 우위를 통한 압박’, ‘상대의 실수 및 견어내기 유도’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압박 수비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은 총 3 개의 상위 범주와 6 개의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첫째, 상위범주로서의 공격차단은 압박을 통해 상대를 후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술로서 하위범주는 패스루트 차단 및 패스옵션 제한으로 구분하였다.

**[상대 공격의 전진 가능성을 차단]**

전문가 A: 수비의 1 차적인 목적이 상대의 전진을 막는거니까... 전진 패스를 못하도록 패스 길을 차단하면서 올라가야하고 상대한테 접근을 해야지.

전문가 E: 압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볼을 가진 상대에게 접근해야하고 그 주변을 동료들이랑 같이 압박하고 하지만 패스 길을 차단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문가 B: 상대한테 접근할 때 주변을 보면서 상대가 어디에 위치했고 어디로 패스를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쪽을 막으면서 접근해야겠다는 것이 나와요.

**[상대 공격의 전환 가능성을 차단]**

전문가 B: 상대가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반대쪽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포지셔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압박을 나가면 되요.

전문가 D: 압박하려면 좁은 지역 안에 가둬야하는데 볼을 반대쪽으로 돌려버리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환하는걸 막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상대 선수를 마킹할 수 있어야 되요.

둘째, 상위범주로서의 라인컨트롤은 상대의 전진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전술로서 하위범주의 내용은 수비라인의 전진과 후퇴로 분류되었다.

**[1-2 선 수비라인의 역할]**

전문가 E: 압박을 할 때 (상대가)전방의 동료에게 연결하지 못하도록 1 선과 2 선이 함께 상대를 조여 가는 플레이가 필요하고... 패스 연결을 방해하면서 올라가야 이게 가능하죠.

전문가 C: 반대편에서 빌드업을 한다. 그러면 1 선이 먼저 압박하고 2 선이 뒤따라 압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상대가 빌드업할 때 한명을 더 두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팀에서 한명을 더 끌어와 압박 한다거나 하는 식의 대처가 필요해요...

**[3 선 수비라인의 역할]**

전문가 A: 1-2 선이 올라가게 되면 배후에 공간을 남기겠죠. 거기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쉽게 전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3 선 수비라인이 전진했다 후퇴했다 하면서 상대를 견제해줘야 되는거예요.

전문가 E: 결국 압박한다는 건 볼을 빼앗는다는 거고, 압박도 그냥 편하게 수비하는게 아니라 스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심하죠. 그럼 최대한 압박을 했을 때 볼을 빼앗는게 효과적인건데... 3 선 수비라인이 상대 공격수에게 연결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야 되요.

**[오프사이드 트랩]**

전문가 A: 오프사이드 트랩을 잘 쓰는 팀들은 상대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위축시킬 수 있죠. 침투하려고 하는데 몇 번 오프사이드에 걸리면 그때부터는 계속 반복되거나 늦게 출발해서 못 받거나 하는거야.

전문가 D: (수비)라인을 올리게 되면 2 선과의 간격도 줄고 상대 공격수가 볼을 받아도 여의치 않게 되고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배후공간을 넓게 주더라도 오프사이드를 통해서 상대 공격을 저지할 수 있어요.

전문가 B: 수비수들끼리 조직이 잘 되어있다면... 상대 공격수를 오프사이드에 들게 해서 볼 소유권을 다시 얻는다거나...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으면 볼을 줄 수 없으니까 공격 작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배후 공간에 대한 대처]**

전문가 C: 수비라인이 전진한다는 것은 배후에 공간을 많이 남겨놓을 리스크를 훨씬 더 떠안은 것이거든요. 전방압박을 하면 상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으로 때려서 올라간다거나 공격수에게 다이렉트로 연결해버려요. 이럴수록 3 선 라인외의 기동력이나 배후 공간에 대한 방어 능력이 중요해지죠.

전문가 D: 수비가 전방으로 나가면 뒷공간을 노출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비라인이 전방으로만 이동하는게 아니라 후방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거니까 상황에 따라 전후 이동을 잘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되어돼요.

셋째, 상위범주로서 상대실수유도는 압박을 통한 볼 탈취 및 볼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전수로서 하위범주는 수적 우위를 통해 압박과 상대의 실수 및 견어내기 유도로 분류하였다.

**[볼을 소유한 선수 주변을 둘러쌈]**

전문가 C: 볼을 가진 선수에게 직접 들어가서 경합하거나 그 주변을 둘러싸서 볼을 빼앗는 것이 가능해요 수적으로 우위를 가지게 되면. 그래서 주변을 둘러싸는 방법도 압박할 때 많이 나타나는 것들 중 하나예요.

**[스페어 맨의 역할]**

전문가 E: 수비형 미드필더나 측면 미드필더가 압박에 가담해서 수적 우위를 취한다거나 압박에 가담함으로써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죠.

**[선수 간의 간격을 좁게 유지]**

전문가 A: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바로 도와줄 수가 있잖아. 그리고 상대보다 빠르게 접근하려면 간격이 가까워야지. 그래야 그 지역에서 상대보다 빠르게 볼을 수 있고 숫자도 총원되고...

**[최후방의 상대에게 접근]**

전문가 E: 상대가 볼을 후방으로 연결했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 접근해서, 견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상대 수비들도 부담을 느끼고...

전문가 B: 발 밑이 좋지 않은 수비수의 경우, 더더욱 접근할 필요가 있고, 더 이상 패스할 곳이 없는 선수에게도 접근해서 견어내게 하면 볼을 되찾을 수 있죠.

**[상대의 실수 유발]**

전문가 E: 기본적으로도 압박 하겠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선수들한테는 더 강하게 접근해서 실수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죠...

전문가 C: 한번 실수 했던 선수들이나 계속해서 불안한 선수들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요. 이런 선수들한테 좀 더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다가간다거나 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해요...

### 3.2.3. Delaying counterattacks

역습 지연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은 상위 범주로서 ‘수비 라인의 점진적 후퇴’와 ‘미드필더 라인의 급진적 후퇴’로 구성하였고, 하위 범주로서 ‘상대 역습에 대한 견제’, ‘상대 역습에 대한 일정 거리 유지’, ‘상대 역습에 대한 후방 압박’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역습 지연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은 총 2개의 상위 범주와 3개의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첫째, 수비라인의 점진적 후퇴와 관련한 하위범주는 상대의 역습속도를 늦추는 것과 상대의 전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 [역습 상대와 일정 거리를 유지]

전문가 A: 역습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를 마주보면서 내려간다고 하죠. 상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게 중요해요 너무 가까워서 안되고 멀어서도 안되고...

전문가 C: 상대 역습을 지연시키는게 중요한데... 보통 2에서 3미터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내려가죠. 상대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나 패스 길을 차단하는 것도 병행이 되요.

#### [역습에 관여하는 상대를 견제]

전문가 C: 일단 역습에 관여하는 선수들을 시야 안에 두고 있어야 되요. 그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응해야 되니까..

전문가 E: 역습 상황에서 볼을 지닌 선수를 견제하면서... 주변에서 역습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선수들을 같이 견제해줘야...

#### [상대의 전진성 플레이를 방해]

전문가 B: (역습 상황에서)가장 빠르게 올라가는게 중요하니까 뒷공간을 공략하는게 제일 효과적이죠 역습하는 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침투패스가 안들어가게 하는게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역습 과정이 훨씬 느려지죠.

전문가 E: 상대가 전진할 수 없게끔 패스 길을 막는다거나 후방 패스를 유도한다거나.. 역습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둘째, 미드필더 라인의 후퇴는 상대를 후방에서 압박 및 재압박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역습하는 상대를 후방에서 압박]

전문가 C: 전방에 있던 선수들은 치고 올라가는 상대를 최대한 빠르게 접근해서 수비 해줘야 하고..

전문가 D: 먼저 역습 속도를 늦췄다... 그러면 주변에서 얼른 지원하고 뒤에서 붙고 경합해서 다음 공격 작업을 못하게 해야죠.

#### [역습 수비를 지원]

전문가 B: 우선 상대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일단 상대 역습 속도를 늦춰놓고 미드필더 라인이나 전방에 있던 동료들이 (역습에 대한 수비를)지원하죠. 그렇게 됐을 때 볼을 탈취할 확률도 높아지고...

전문가 D: 상대 입장에서는 전방에 수비수가 있고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편 동료들이 붙게 되면 역습 작업이 어렵죠 그래서... 역습 상황에서는 빠르게 수비 위치로 복귀하는게 중요하고 특히 중원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역습 수비를)지원해줘야 되요.

전문가 E: 역습이란게 아시다시피 속도가 중요하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포지션에 상관없이 위험지역으로 지원 가서 상대 움직임에 대처하는게 필요해요.

### 3.2.4. Immediate pressure

즉시 압박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은 상위 범주로서 ‘역습 차단’을 추출하였고, 하위 범주로서 ‘1차 저지’와 ‘전진 가능성 차단’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즉시압박 수비에 대한 전술요인은 총 1개의 상위 범주와 2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다. 상위범주로서 역습차단은 즉시 압박을 통해 상대의 역습을 저지하는 전술로서 설명되었다.

첫째, 하위범주로서 ‘1차 저지’의 경우, 상대가 역습을 시작하는 지점에 우선적으로 가해지는 방어 행위를 뜻한다. 세부 구성 항목으로 ‘역습 시작 지점에서의 접근’, ‘신체 접촉을 통한 역습 저지’, ‘역습 저지를 위한 인원 배치’를 통해 상대 역습에 대한 방어를 달성할 수 있다.

**[역습 시작 지점으로의 접근]**

전문가 B: 일반적인 압박 상황이란 다르게 역습은 수비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니까... 그럼 역습 지점과 가까운 선수들이 수비에 가담해야 되고 선수들의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거죠.

전문가 C: 제일 먼저 접근해서 동료의 지원이 오기 전에 상황을 종결 상황을 연출해서 유리한 상황에서 역습 저지가 이루어지도록 함

**[신체 접촉을 통한 역습 저지]**

전문가 D: 역습 상황에서 카드 받지 않으면서 반칙하는 것도 능력이니까... 역습이 시작되는 곳에 빠르게 이동해서 상대 선수한테 접근하는... 경합해서 이길 수 있느냐, 반칙으로 끊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대 역습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전문가 A: 위험한 상황이다 판단이 되면 반칙해서라도 끊어야겠다... 이런 파울을 적절하게 쓰는 선수들이 있죠. 이런 선수들한테는 상대 역습을 1 차적으로 저지해라. 그런 임무를 줘요.

**[역습 저지를 위한 인원 배치]**

전문가 A: 특정 선수한테는 상대가 역습하면 제일 먼저 가서 저지하는 임무를 주기도 해요.

전문가 B: 역습 상황에 대비해서 수비 숫자를 기본적으로 3 명은 가져가요. 팀마다 다르겠지만 상대 역습 형태에 따라서... 공격 숫자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가져가는데 기본적으로 몇 명은 역습 상황에 대비해서 남겨두죠.

둘째, 다른 하위범주로서 '전진 가능성 차단'의 경우, 상대 역습 과정에서 패스 루트 및 드리블 공간을 제한함으로써 위험 지역으로의 진입을 방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세부 구성 항목으로서 '역습 시작 지점에 대한 압박', 상대의 실수 유발'을 통해 상대 역습 과정에서 전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했다.

**[역습 시작 지점에 대한 압박]**

전문가 D: 주변을 둘러싸게 되면 수적으로 우위에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상대가 할 수 있는게 적어지고...

전문가 B: 역습 상황에서는 전방으로 향하는 움직임들이 대부분이죠. 패스를 통해서 나가거나 드리블을 통해서 나가거나... 패스 연결 2-3 번 만에 슈팅을 연결하려 하니까 볼 뺏기는 즉시 압박해서 차단하는게 필요해요.

전문가 E: 역습 상황도 마찬가지로요. 바로 압박 들어가는 팀들도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볼을 가진 상대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압박하니까 동료들이랑 같이 접근하면서... 패스 길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

**[전진가능성 차단:상대의 실수 유발]**

전문가 A: 압박 한 번 하면 체력소모가 심하니까 한번 나갔을 때 볼을 빼앗는게 필요하죠. 상대한테 빠르게 압박해서 실수를 유도하거나...

전문가 E: 역습 상황에서 우리도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상대도 비슷해요. 역습에 준비가 잘 된 팀이라면 모를까 상대 팀이 역습을 전개하기 유리한 상황이 되기 전에 빠르게 압박해서 차단할 수도 있어요.

**4. Conclusion**

축구 경기에서의 전술은 경기의 특정 시점의 상황에서 팀의 목적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종합적인 행위에 대한 결과이다(Lames & McGarry, 2007). 따라서 전술을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전술이 구현되는 상황에 관한 정보는 필연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기존의 경기력 관련 연구들은 경기의 상황을 4 가지로 구분하여 경기력을 파악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현장과 학계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구조 중 하나이다(Garganta & Pinto, 1994; Costa et al., 2009). 본 연구에서도 축구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에 근거하여 경기의 상황이 4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각 경기 국면에서 전술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을 세분화하는 것이 전술 요인을 추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축구에서의 경기력을 바라볼 때 개인의 경기력 아닌 팀의 경기력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축구에서의 전술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과 전술 요인이 실제 경기에서 측정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구에서의 전술 요인은 축구 경기를 구성하는 네 가지 상황에 따라 구분되며, 전술 요인의 세부 구성은 경기에서의 특정 상황과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지점에 따라 결정된다. 축구에서의 상황은 '경기의 국면'으로 표현되며,

'경기의 국면'은 '공격 국면', '수비로의 전환 국면', '수비 국면', '공격으로의 전환 국면'으로 구분된다. 둘째, 공격 국면에서의 전술 요인은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활용한 전술', '전방의 움직임을 활용한 전술', '공격방향 전환을 활용한 전술', '개인 능력을 활용한 전술', '크로스를 활용한 전술', '포스트플레이를 활용한 전술'이 도출되었고, 공격 전환 국면에서의 전술 요인은 '전방의 움직임을 활용한 전술', '개인 능력을 활용한 전술', '크로스를 활용한 전술'이 도출되었다. 셋째, 수비 국면에서의 전술 요인은 '수비 대형 유지', '수비 커버리지', '후방 유도', '라인 컨트롤', '상대 실수 유도'이 도출되었고, 수비 전환 국면에서의 전술 요인은 '수비 라인의 후퇴', '미드필더 라인의 후퇴', '1 차 저지', '전진 가능성 차단'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몇 가지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팀 경기력 평가에서 전술 요인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고, 전술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술 요인의 측정이나 자료 분석의 과정보다는 전술 요인의 탐색 과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전술은 팀, 부분, 개인의 영역으로 구분하지만, 이를 구분할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술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팀 전술과 부분 전술을 구분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한데, 특정 포지션 혹은 일부 선수들이 구현해내는 전술을 부분 전술로 바라봐야 하는지 아니면 팀의 모든 선수들이 구현해내는 전술을 팀 전술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상존한다. 이 연구에서도 추출된 전술 요인은 기존의 전술 분류 체계 하에서 부분 전술의 범주에 속하지만, 이를 팀 전술과 구분지어 바라볼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팀 전술과 부분 전술의 개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Costa, I. T., Garganta, J., Greco, P. J., & Mesquita, I. (2009). Tactical principles of soccer: Concepts and application. *Moritz, Rio Claro, 15*(3), 657-668.
- Garganta, J., & Pinto, J. (1994). O ensino do futebol. *Rainho & Neves Lda, 1*, 95-136.
- Goetz, J. & Compte, M.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London: Academic Press.
- Hughes, M. (1988). Computerized notation analysis in field games. *Ergonomics, 31*(11), 1585-1592.
- Kang, J-H., & Yun, Y. (2023). Performance evaluation factors reflecting player and casting judgments of football coache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34*(3), 424-432.
- Kim, J. H. (2007). Analysis of content for the estimate of team performance in soccer.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6*(2), 201-211.
- Lames M., & McGarry T. (2007). On the search for reliable performance indicators in game sp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Performance Analysis in Sport, 7*(1), 62-79.
- Luhtanen, P. (1993). *A statistical evaluation of offensive actions in soccer at World Cup level in Italy 1990*. London: Taylor & Francis.
- Min, D-K., Lee, Y-S., & Kim, Y. R. (2015). Performances analysis of football match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1), 187-196.
- Soltanzadeh, S., & Mooney, M. (2018). Players within a team: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eam performance through individual functions and team objectives. *International Sport Coaching Journal, 5*(1), 1-6.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Yun, Y., & Kim, J. S. (2017). Validation examination for introduction of team performance conception in football.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8*(4), 994-1005.
- Yun, Y., & Kim, H. (2021). Possibilities of applying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e fields of research on and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football performance.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32*(2), 119-132.
- Yun, Y., Kim, Y-S., & Im, S. (2021). Changes in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football performance.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32*(1), 67-80.